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 서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673호 현대불교  
2008년 4월 2일(음력 2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요동치는 그 마음을 없애고 탁 뇌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이거 보세요. '내가 있기 이전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나 있기 이전이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씨를 갖다 심으니까 잡초가 나왔어요. 오이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박씨든 참외씨든 무씨든 흙밭 그 겉때기는 벗어지고 알맹이가 짝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짝이 돼서 나와서 한 쉼 삽니다. 그게 한 쉼이예요. 한 쉼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서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어요. 무르익어 가지고 씨가 거기 들어 있어요. 작년에 있던 씨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씨가 그 속에 들어 있으니 그 속에서 찾아야 될 텐데, 이걸 저 땅에 심었다고 바깥에서 그걸 찾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바깥에서 각각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이거 각각 저거 각각... 여러분에게 구비돼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전부 여러분한테 구비가 돼 있지 바깥에 돼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우주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렇게, 내가 나오기 이전의 씨가 내 속에 들었다 이거예요. 내 속에 들어 있고 씨도 그렇게 들어 있는데 아니,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 씨이 나지요. 참외 씨이 나고 참외가 열리면 다른 게 날 수 있나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지요.

그 속에 들어 있는데도, 이것이 거죽은 노랑고 속은 하얗고 뭐, 물렁물렁하고 씨가 들어 있다는 중, 여러분은 만날 이론으로만 듣고 실천을 옮길 줄 몰라요.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줄 모르고 만날 이론이예요. 이론! 그리고 이론으로 하다 보니까 망상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니까 놓을 줄도 모르고 놓을 줄 모르니까 만날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네? 제 씨는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제 씨를 찾느라고 온통 헤매는 거지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온통 바깥에서 찾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미처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타고난 사람인데, 99%가 부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어찌 그럴까 이거지요. 네? 사람 되기 이전에 얼마나 쫓기고 쫓기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얼마나 그 시련을 겪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겪으면서 경험을 얻고, 겪으면서 지혜를 넓히고, 겪으면서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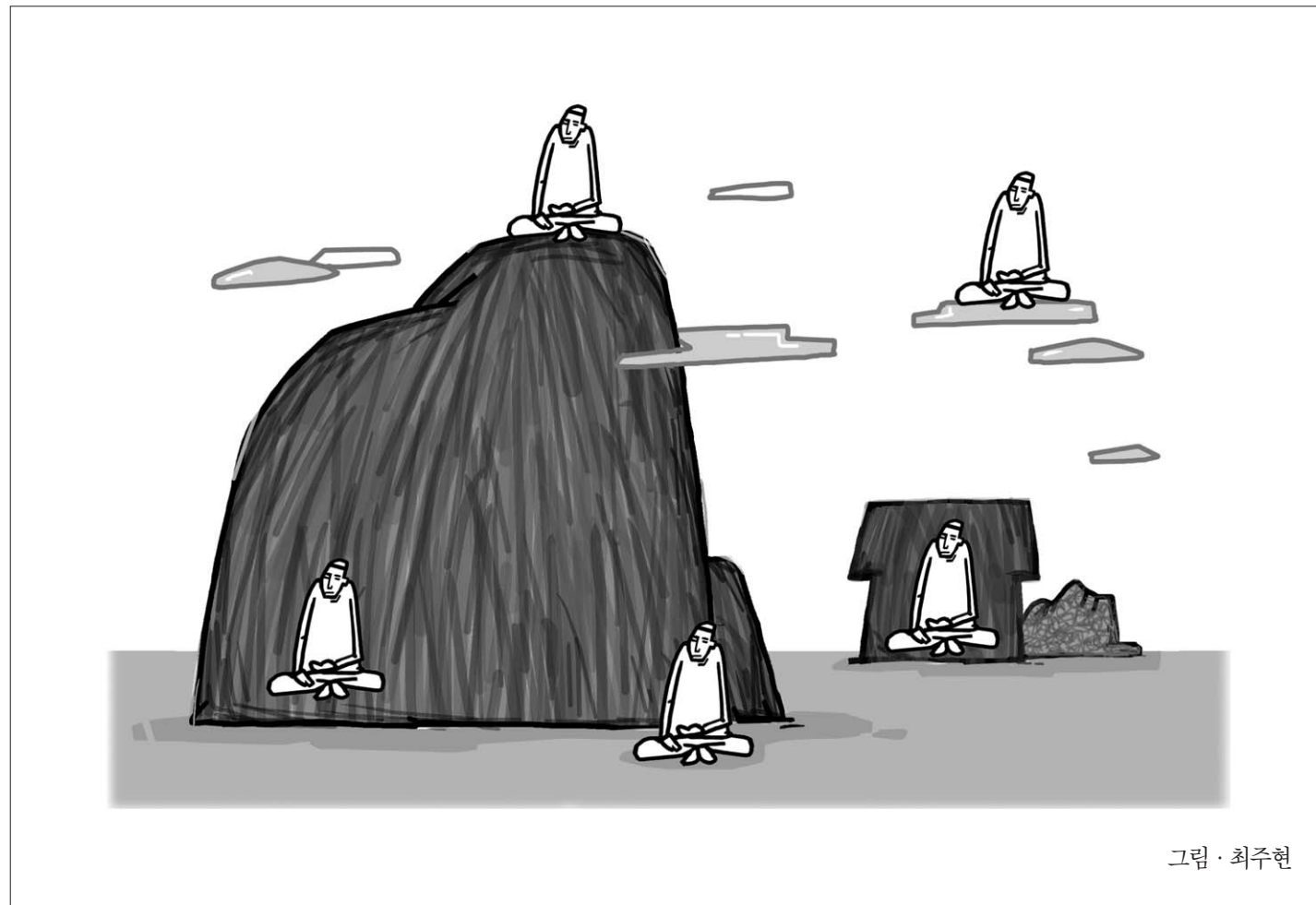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 나쁜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르락내리락하고 윤회에 밀려 끌리면서 헛바퀴 돌아가듯 끝없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낮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일어나듯이, 나한테서 병난 거는 나한테서밖에 해결할 수 없듯이 '내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그러느냐.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 의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통해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감리면서 돌아가니 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내가 한생각 하는 건 지배인과 같다 이겁니다. 내가 한생각 잘못하면 여러 생

명들이 내 생각대로 다 잘못 돌아가면서 그냥 병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그처럼 아주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됐거든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고 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허허하... 고걸 마치고 해야 할 텐데 글썽, 이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든지 그저 한자립니다. 돌아간 자리가 따로 없고 돌아온 자리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저렇게 돌아가고 요렇게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묘한 도리요 부처님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 소리죠. 내가 이렇게 질서 없이 또는 체계가 없이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고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 이리로 가다가도 그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자유권을 가졌구나!' 하는 거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뜻만 잘 받아들인다면 내가 체계적으로 안 해도..., 그건 체계가 없어요.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도리, 시공이 없는 도리는 체계가 없고 질망이 없고 승리가 없고 모든 건 자유자재예요, 그대로!

조금 전에 뭘 얘기했죠? 네?

신도1(남): 절로 들어가는 거 얘기했습니다.

스님: 예. 절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던 거는요?

신도2(여): 건강한 사람이 별안간에 병이 났어요.

스님: 응응. 그렇죠? 난 이렇게 가다가도 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길을 물어서 가면 될 거를 내가 뭘 어느 길인가 생각하고 있겠느냐 이라고 왔어요, 오늘도요. 아유! 길을 모르면 여러 분한테 물어서 가면 될 거를...

신도3(남): 신발이 저기 있는데요, 뭘... (대중 웃음)

스님: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바로. 네? 신발이 저기 있는데 뭘, 무슨 걱정이 있냐고. (대중 웃음) 아! 그것이 참, 훌륭한 아주..., 허허하... (대중 웃음)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

그분은 기운이 세고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하다가 아마 반 이상이 잘못됐던 모양이죠. '뭘 대로 돼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대로 돼라' 이러곤 술 마시고 그냥 뭘 이리저리 방향하고 이러니까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지배인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막 곧드레만드레가 돼서, 즉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속에서 자기소임 맡은 거를 그냥 제대로 해 나가지 않고 그랬던 거죠. 이쪽에서 술을 먹으니 그쪽에도 술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생들을 먹이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요 입만 빌리고 식도만 빌렸죠. 그러고는 다 그냥, 식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먹게 되고 위 공장에서도 일하는 직원들도 먹게 되고, 소장 대장 방광 똥, 간 쓸개 이자서건 일하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먹게 되죠. 다 먹게 되니까 서로 다 취한 거예요. 취해서 그냥 자기 질서를 문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쇼크를 받고 그렇게 자기 버려가지곤 사흘 이내에 죽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자기를 자기가 지켜 나가려면 지배인이 한생각을 잘해야지 모든 중생들의 집을 잘 끌고 갈 수 있죠. 이 몸이 흑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 국토, 여기서 내 국토예요. 여러분의 국토 아닙니까? 은하계의 별성처럼, 지구 안의 사람들처럼, 지구화풍으로 바람이 돼서 그 국토 안에 내 중생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토를 올바르게 지키려면 한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망했다 하더라도 깔깔 빙긋이 웃고 말입니다. "허, 이래도 웃어남 구멍이 있겠지. 사람이 어떡하다 나왔으면 사는 거지, 뭘 그래!" 하고선 탁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마음, 그것이 살리는 겁니다. 도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법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그 달구지에 짐을, 과거의 짐을 다 실었거든요. 근데 달구지를 치는 거예요. 몸뚱이, 달구지를 치는 거죠. 소를 쳐야 할 건데 자꾸 달구지를 치니 그러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니까, 소가 겁니까? 구르질 못하죠. 달구지만 부서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으니, 소는 바

26면으로 계속

##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귀의 삼보하움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3월 중순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사찰의 법회, 불사 및 행사 등의 소식을 순회선기자들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귀 사찰의 법회, 불사 및 행사 등은 충청지사에서 전문 기자를 통해 취재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취재 및 광고 요청 방법

- ◆ 전 화 : (043)732-5560
- ◆ 핸드폰 : 혜철 지사장 010-9422-8453  
순효선 기자 010-9577-2209
- ◆ 메 일 : 충청 지사장 ksson108@hanmail.net  
순효선 기자 mindinhot@empas.com
- ◆ 팩 스 : (043)732-5520

현대불교신문사 충청 지사장 혜철 합장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책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세상에 흘러 전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떠들지 않으면 스스로 볼 줄 모르고 부추기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줄 모르는 오늘 바람 닳아내어... 어제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신문광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습니다.

500원씩, 천 원씩 보시를 받아 6만원을 모아 저소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은 더 발품을 팔아야 광고비를 충당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사찰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하고 물으시 모르지만 특별한 반없이 신생사찰을 꾸리자니 포교비용에, 운영비에 쪼들리는 날이 그치지 않았습다. 책을 펴내 사정을 바꿔보려고 작년 말에 수행지침서인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고, 얼마 전에 「나를 바꾸는 108배 대참회문」을 냈습니다. 두 권 다 제 나름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싶었는데 책이 팔리지 않아 사정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자 여러분, 제 책 좀 사주면 안되나요?  
전국 불교서점 및 교보, 영풍, 인터넷서점 등에 있습니다.

시방사에서 석호 합장

• 포교후원계좌: 대구은행 034-10-003424 (예금주: 시방사)  
문의전화 0531654-0408 / 법공양문의 0531253-1923

## 신 유식학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전·생활속 수행과 禪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